

# 대경중 고미희 교사 장원 차지

## 제1회 이해조문학제 독후감 공모에서



포천의 문학·문화인의 주축이 된 이해조문학제(회장 김성렬)는 동농 이해조 선생의 문학

정신과 계몽사상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일반부 장원은 대경중학교 고미희 교사가 차지했다.

장원을 차지한 고미희 교사(사진)는 자유증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했으며 특히 당시 개화기의 시대적 상황을 현 시대에 잘 대비시켜 포천인물로 충분히 설명해왔기 때문이라는 인물이란 고 교사의 문학적 소신이 잘 표현된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 교사의 독후감은 포천시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회 이해조문학제 독후감 공모는 동농 이해조 선생의 작품 선출과 구마검 중 한 작품을 선택하여 읽고 작품을 주제 및 특징을 부각시키고 작품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조명하도록

했다. 이번 독후감 공모결과에 따른 시상식은 20일 오후2시 대경중학교에 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장원에게는 상금 30만원, 차상 2명에게는 각 10만원, 공동부 장원에게는 포천교양상과 상금 10만원, 차상 2명에게는 포천문화원장상과 상금 각 5만원, 장려 2명에게는 상장 및 부상이 주어진다.

이번 제1회 이해조문학제 이해조문학회가 주최하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포천교육청, 대경중학교, 포천문화원, 포천에총, 포천신문, 제3의문학이 후원해 마련됐다.

제1회 이해조문학제 독후감 공모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일반부) ▶장원 고미희(대경중학교 교사) ▶차상 백종만(외북초등학교 교사) ▶차상 용경자(소흘읍 송우리) ▶차상 한지옥(대경대학교 문예창작학과)(중등부) ▶장원 이지은(포천여중 3년) ▶차상 이정민(정부 발곡중 2년) ▶차상 문재민(포천중 1년) ▶장려 육해원(포천여중1년) ▶장려 박승현(대경중 3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웅진씽크빅, 포천시에 도서 500권 기증

## 바우처 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제공기관

아동 학습지 전문업체인 (주)웅진씽크빅(대표 김준희)은 최근 소흘읍 송우리 주공3단지 내 희망스타트에서 환영철 포천부시장과 (주)웅진씽크빅 강북지역본부장(홍기표)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에 아동 및 유아용 도서 500권을 기증했다.

기증된 도서는 소흘읍 송우리 주공3단지 내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가족여성과(과장 장미환) 희망스타트 공부방에 보내어 희망스타트를 이용하는 3백여명의 아동들이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예정이다.

(주)웅진 씽크빅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과장 홍운기)에서 시행중인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전국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제

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포천 지역에서 약 700여명의 아동에게 독서지도 바우처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남다른 노후와 교재선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제공기관이다.

이날 환영철 포천부시장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앞으로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주)웅진씽크빅에서도 향후 포천시 아동들을 위해 도서기증과 저소득층 공부방 지원 등 지역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승남 기자 forme65@paran.com



(주)웅진씽크빅은 최근 소흘읍 송우리 주공3단지 내 희망스타트에서 환영철 포천부시장과 홍기표 강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에 아동 및 유아용 도서 500권을 기증했다.

# 韓國의 선비정신 · 86

## 진주대첩과 김시민(金時敏) (4)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진주성은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 연안에 위치하여, 동은 북한·진해, 남은 사천·고성, 북은 삼가·의령에 접하여, 서는 단성·곤양·하동을 통하여 전라도에 이르는 요지로서, 목사가 다스리는 곳이었다. 목사 김시민(金時敏)은 본시 진주의 관공로서 전 목사 이경(李敬)의 후임자로 성을 지키게 되었다.

이 때 부산의 왜장 하세가와 도오고로오(長谷川藤五郎)는 동래·김해의 왜군 3만여 명을 규합하여 우도(경상도 서쪽)로 침입하는 동시에, 또 수군을 발하여 웅천 해안에 등거하여 우리 전라도 군사의 진로를 방해하려 하였다. 우병사 유순인(柳舜仁)이 왜장 도오고로오를 맞아 참원에서 싸우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여 몰려서야 왜군은 승승하여 함안에 쳐들어와 우리 방어군을 격파하고, 진주성으로 들어 닦쳤다. 때는 임진 10월 5일이었다.

목사 김시민은 성문을 굳게 닫고 병사들에게 명하여 방전의 준비를 만반으로 갖추게 하는 동시에 경계망동하거나 태만하지 말라 하고, 자신은 친히 순시하면 병사들에게 주식을 주며 위로하기도 하였다.

적군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우박과 같은 총탄이 성 안으

로 쏟아져 들어왔으나, 한 사람도 맞지 아니 하였다. 얼마 뒤에 총소리는 그쳤으나, 성 안에서는 일부러 태연함을 보이기 위하여 고요히 여러 악기를 연주하였다. 그러자 작은 큰 대나무를 베어다 성 동북쪽에 누각을 만들고 그 위로 올라가서 성 안을 내려다보며, 조총을 어지러이 쏘아댔다. 이에 김시민이 화약을 넣은 화살을 발사케 하여 그 누각을 격파시켜 적으로 하여금 그 꾀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오륙일을 서로 버티고 있는 중에 의병장 객재우가 용사 삼대승(沈大承) 등 백여 명을 보내어 밤에 헛불을 켜고 성 밖 비봉산 위에 올라가 지원의 형세를 나타내 보이니, 적은 서로 돌아보며 대경실색하였다. 제6일 밤에 적병들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성 밑으로 돌진해 들어와 성을 기어오르려 하자, 성내에서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마른 풀에 화약을 싸서 성밖으로 던지고 혹은 큰 돌을 내리굴리며 끊는 물을 끼얹기도 하니, 화살과 돌이 비오듯하여 거의 기마에게도 맹렬히 화살과 돌을 연발하여 올라오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왜적은 큰 손해를 입고 기운이 꺾이며 포위망을 풀고 물러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김시민이 친히 성루에 올라가 퇴군은 적병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 많이 쓰러뜨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날아온 적의 유탄이 이마에 맞아 유혈이 낭자하였으나, 그는 끄덕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싸웠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시민은 신을 하기 달포만에 불구의 객이 되고 말았다.

김시민, 그는 육지의 이순신이랄 할 만큼 잘 싸워 대승리를 거두고 죽었다. 성이 포위되기 6일, 그는 병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부하 사랑하기를 아들과 같이 하여, 병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용전분투케 하였으므로 마침내 적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임진 10월의 승훈으로서 제1차 진주 싸움이다. (다음호에 계속)

# 비 미국행위 조사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에 맞선 아서 밀러(Arthur Miller)

비 미국행위 조사위원회 (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는 1930년대 나치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조사하고 감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2차 대전 후에는 소련의 성장과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공산주의자 색출을 위한 마녀사냥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1940년대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는 한동안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탐침을 필요로 하는 제작자, 연출자, 배우와 감독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만연했고 불이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동료들을 포함하는 사태를 가져 오기도 했다.

1947년 비 미국행위 조사위원회는 공산당에 가입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 블랙리스트의 뿌리는 1930년대 스탈린 사상에 심취한 젊은 이상주의자들에게 있었다. 할리우드의 경우 유니버설 영화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메이저 영화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반공산주의를 외치는 영화를 만들어냈고 존 부 영하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쉐인(John Wayne)의 '빅 짐 맥레인(Big Jim McLain)'과 '갈티 오브 트리즌(Guilt of Treason)' 같은 영화가 그 선봉에 나섰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미국 내의 분위기는 극도로 보수적 성향을 띄었고 그 블랙리스트 속에 있던 감독의 유명한 작가, 연출가, 각본, 배우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때로는 미국을 떠나야 했다.

《몰레루즈(Moulin Rouge, 1953)》와 뮤지컬 《애니(Annie, 1982)》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휴스턴 감독(John Marcellus Huston, 1906~1987), 명작 《카사블랑카(Casablanca, 1942)》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험프리 보가트(Humphrey DeForest Bogart, 1899~1957), 리처드 아텐보로(Richard Attenborough) 감독과 이미 앞에서 살펴본 찰리 채플린(Charlin) 등이 특히 주요 인물들이었다.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 1949)》의 작가로 유명한 아서 밀러(Arthur Asher Miller, 1915~2005)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미국을 떠나 스위스에 정착한 채플린과는 반대로 아서 밀러는 브로드웨이를 지키며 불합리한 위원회에 대항해서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아서 밀러의 극적 사상의 기저에는 급진 좌파연극 형식을 만들어낸 클리프 오데츠(Clifford Odets)의 영향이 있다. 아서 밀러는 미국 문화의 병폐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개인의 약점이 사회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고 행동의 심리적 원인을 도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1953년 초연된 《시련(The

Crucible)》은 1692년 미국 세일럼에서 있었던 마녀재판과 1947년 시작된 비 미국행위 조사 및 심문을 평형상자에 놓고 극적대입을 시켰다. 사실 비 미국행위자 색출을 통해 드러난 모함과 고발의 횡포뿐만 아니라 양심조차 쉽게 내던져버리는 현대 미국인들의 모습을 《시련》을 통해 대신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1952년 연출가 겸 영화감독인 엘리아 카잔(Elia Kazan)은 자신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있다는데 대한 공포심으로 자신의 극단 단원 8명을 공산당 멤버라고 고발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고변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서 밀러는 세일럼을 방문했으며 《시련(The Crucible)》의 공연을 가숙화했다. 1940년대 까지 아서 밀러와 엘리아 카잔은 매우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 고변 이후로 그들의 우정은 끊이 났으며 아서 밀러는 비 미국행위 조사위원회와 맞서 다음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결국 정의를 승리함을 보여주었다.

“1954년 미국무성은 《시련(The Crucible)》의 벨기에 공연에 참석하려면 밀러의 여권을 공산주의 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발급을 취소한. 아서 밀러는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부인. 1956년 위원회에서 소환되어 심문을 받던 중 공산당원이었던 자신의 친구 이름을 알려

주신 것을 거부한 이유로 국외 모독죄로 고발. 1957년 유죄판결을 받고 500불의 벌금과 집행유예 3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서 밀러는 상고를 했으며 1958년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서 밀러가 자신의 작품 중에서 가장 애착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는 《시련(The Crucible)》은 결국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초가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집단적 권력 앞에서 희생된 개인의 양심과 인권을 청교도 사회의 마녀사냥을 통해 고발했던 것이다. 아서 밀러는 개인의 존엄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자들의 죄를 폭로하는 것이 《시련(The Crucible)》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이며 ‘잘못된 가치관으로 죄를 짓고 그 대가로 죽어야 하는 운명’을 묘사한 데서 발전하여 그 죄를 깨닫고 죄를 밝혀내는 내용으로 주제를 승화 시켰던 것이다. 그것을 재판장에서 몸소 실현한 것이 아서 밀러였으며 오늘날 브로드웨이를 넘어 세계적인 작가로 추앙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이다.



운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21) 서원마을



「서원 마을(말)」하면 신복면 신령리를 이르는 말이다. 「용원서원」은 한국의 서원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만치 유명하다. 용원서원이 대원군 집권시 훼손되지 않았던 사례를 내세우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서원마을이 조선조 초기 이후, 조정에서 별궁(別宮)을 지을 예정지로 확정하고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중지된 명당이라는 점이 왕조실록에 남아 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0호(76.8.27)로 지정된 만치 보전(保傳) 가치가 높다. 「한음」과 「용주」가 차라고 말년에 은거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서원마을」에 대한 정감(情感)을 느낀다. 「조경」은 1643년 일본에 통신부사(通信副使)로 다녀와서 「동차록(東槎錄)」이라는 기행문을 남기는 저술가였다. 병자호란 당시 「김상헌」, 「오달재」, 「홍익한」, 「윤집」, 「이경석」 등과 함께 척화론(斥和論)을 썼던 「조경」선생이다. 「삼학사(三學士)」와 함께 오랑캐들에게 불로 끌려가야 했으나 도승지(道승지)의 간청으로 겨우 위기를 면하기도 한 「조경」선생이었으며 저서로는 「용주집(龍洲集)」, 23권과 저술한 동차록(東槎錄) 등이 있고 내고향 포천 읍지인 「경성지(京城地)」가 있어 포천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은 특기할만 하다. 「용

주(龍州)」란 이름도 「용원(龍淵)」에서 나온 남의 호이다. 또 「한음(漢陰)」이 이곳에 은거한 이유는 어렸을때 살던 유전(柳田)의 집이 포천에 있었기 때문이다. 장인인 남인의 거두가 아닌 북인의 영수 이산해(李山海)의 사위가 되어 한 때, 남인과 북인의 중간 노선을 지켰으나 뒤에 남인이 된 「한음」은 남인 「용주」와 함께 「용원서원」에 배향된 것이다. 「한음」은 용원서원을 역대 서원장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서원의 사명인 「선현의향사(先賢之享祠)」, 「한촌교회(韓村敎和)」, 지방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 흐트러다. 합리적인 서원 경영으로 신복·영종 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전통예절을 교육하여 모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대학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한 일이다.

포천 소재 「대진」, 「경복」, 「대학교」에 「조경」선생 연구소도 생기고 앞으로 「용원」도 복원하고 조경 용주선생의 전기도 발행하고 문집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도 행해졌으면 하는게 큰 바람이다 하겠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 이해조문학제 장원 수상작품 ... 고미희(대경중학교 교사) 사회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이해조의 『자유종』을 읽고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에 끌리게 된다. 부모남편은 딸로, 오빠에게는 동생으로, 직장에서는 교사로 살아가는 나는 '여성'이다. 생물학적으로 나누어지는 성은 '남성'과 '여성' 뿐인데, 50%의 확률 속에서 선택되어 세상의 반을 이루는 집단에 속해 있다.

이렇듯 것은 폭발하고, 금지된 것일수록 깨뜨리고 싶어진다. 가정에서 서둘러 오빠는 항상 존중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오빠가 배고플 땐 '여동생'이 밥을 차려줘야 하지만, 점차 오빠의 머리 위로 지나갈 수도, 오빠의 웃이나 신발에 함부로 손댈 수도 없었다.

읽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혹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에 따라 소설의 의미는 다르게 다가온다. 오랜 고향 끝에 대한독립이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균형 을 유지하고 온전하게 발전하고 있었는가?

어느 날부터는 평범 같은 여성인데, 엄마는 왜 오빠만을 우선하는 걸까? 문득 두려워진다. 정말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까? 어느 한쪽의 성이 다른 성보다 우수하고 지배적 일까? 이러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나도 어느새 엄마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100년 전, 이해조는 당시 우리 사회에서 부족하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가장 먼저 꼽은 것은 '학문'의 중요성으로 특히 여자들이 꼭 배워야 한다고 힘있게 강조하였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남자우위의 사교방식이 굳어져 있었을 텐데, 시대를 앞서 생각하고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쾌하게 짚어내었다. 결국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나오고, 여자도 없다면 인류도 이어질 수 없는데, 여자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존재이므로 여자 학문을 닦아야 사회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이다. '학문'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학문을 담은 그것인 말에는 사람의 정신과 기백이 담겨 있다고 보았다. 일시에 한문을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서서히 국문으로 바꾸어간다면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은 아이가 배 속에서부터 시작하며 예의범절을 지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에 작용하는 가장 큰 힘이 어머니이니, 여자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오빠가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할 때는 남자가 더 크고 넓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딸은 서둘러 시집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딸이 시집을 가야 할 때가 되었다. 딸이 시집을 가야 할 때가 되었다. 딸이 시집을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소설이 쓰여진 시대에 가장 강하게 염원하던 것은 나라가 오희처럼 온전히 서는 것이었다. 꿈을 빌려 얘기하지만 오희를 '오독립'으로 꿈으로써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여자를 남자보다 낮게 보아 학문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우리의 온전한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실력보다는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토대가 나라의 독립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변화를 추구하고 불평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살펴보는 작가의 눈이 반짝 빛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외친다. "깨끗한 옷 입혀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꾸는 게 아이들에게도 더 오래 기억될 거야."

우리 사회는 불안정하지만 바꾸어 나갈 부분이 있기에 또한 매력적이다. 여성의 능력이 온전히 인정받고, 우리의 것을 지키며 다른 문화의 강점을 끌어들이는 사회의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지고 강한 나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문화적 풍요로움이 사회 계층의 불평등을 감소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주독립을 누리게 되리라 믿는다.

종은 이미 100년 전부터 울리고 있다. 계속 울을 잡아당겨 끊이지 않게 울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게. 종소리가 작고 미미하여 힘이 약할 것 같지만 그 종소리가 주는 울림은 명쾌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 초대 漢詩 登火可親(등화가친)



류봉현 포천한시사 기사

晝短宵長雪降時(주단소장설강시) 明燈對案讀書知(명등대안독서지) 낮은 햇고 밝은 길고 눈오는 때이니 등불을 밝히고 책상을 대하여 글 읽으며 일을 알겠도다. 家邇賢善雉交友(가오역선우교우) 塾侍開蒙巨擘師(숙대개몽거벽사) 집에서는 책선하는 글 잘 쓰는 벗을 맞이 하고 글방에는 계몽하는 대학자 선생님을 모셨도다. 刻苦希求卿相器(각고희구경상기) 勞心進取老成姿(노심진취로성사) 각고공부함은 경상의 그릇이 희귀를 희귀로 노심초사하기를 모성인 인물이 되기를 진취하고자 함이다. 一勤天下無難事(일근천하무난사) 富貴榮華可待期(부귀영화가대기)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움일 없으니 부귀와 영화를 기회 기대 하였도다.